

## 대전엑스포 20주년 기념 심포지움

-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실현방안 -

8월 9일(금) 대전엑스포 20주년을 기념해 대전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실현방안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이민화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황혜란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발표가 있었다. 황혜란 책임연구원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진화과정과 창조경제 플랫폼 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지난 40년 대덕연구단지 기반 연구기반 조성시기를 보내고 기술사업화를 중심으로 기술상용화 단계를 거쳐 현재는 창조경제 시스템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를 맞았다"며 "대전은 새로운 시스템을 수립해 볼 수 있는 최적의 대상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전국을 모방해 추격하는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른 현 시점에서 창조형으로 전환하려면 출연연구의 역할 변화와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박찬중 대덕연구

개발특구 본부장 송충환 기초과학연구원 정책기획본부장, 이종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 이병민 UST교학처장, 방연호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과장, 문창용 대전시 과학특구과장이 참석해 열린 토론을 나누었다.

박찬중 본부장은 "대전이 창조경제 전진기지가 되려면 기술과 아이디어, 새로운 회사와 창업이 생겨나고 대전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 기업이 탄생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성공을 위해서는 술한 실패 사례도 필요한 만큼 대전이 과학도시를 넘어 과학 기술기업도시로 어우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연호 과장은 "대덕특구를 새 정부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창조경제 조성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대덕특구와 과학벨트를 연계해 응용연구를 세계적 수준으로 지원해 대전에서 만든 상품은 전세계에서 알아주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짝이는 대전발전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지역기능성도시 1위 유지를 위한 대전발전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

응모기간 2013. 8. 1 ~ 2013. 11. 30

제안분야 및내용  
· 경제, 환경, 사회, 명성 분야

선정 및 상금

- 최우수상(분야별 각1명) 3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 우수상(분야별 각1명) 2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등록방법 대전발전연구원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제안합니디 코너 활용 (www.djdi.re.kr)

## 대발연-디트뉴스24 광복68주년 기념 공동세미나

- 8·15 광복을 통한 대전의 변화 -

대전발전연구원과 디트뉴스24는 광복 68주년을 기념하여 8월14일(수) 14시 대전 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8·15광복을 통한 대전의 변화'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광복 68주년을 기념하여 광복의 의미를 되살리고, 광복 이후 대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대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양해림 교수(충남대 철학과), 임상일 교수(대전대 경제학과)의 주제발표와 김태명 교수(한남대 도시부동산학과)의 진행으로 송석량 교수(목원대 교양교육원), 임기대 대표(대전문화연대 공동대표), 정선기 교수(충남대 사회학과)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양해림 충남대 교수는 '8·15 광복 이전과 이후의 대전의 문화'라는 주제발표에서 "앞으로 대전문화가 비범직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생의 문화가 되어야하고, 지역에 주어진 문화적 여건과 문화적 자원의 활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원도심에 여러자원을 융합하고 소통하여 새롭게 창조해 낼 수 있는 공간으로의 재창조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상일 대전대 교수는 '해방전후 대전경제'라는 발표에서 "대전은 근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장소로서 구 도청, 동척, 식산은행, 원동초, 삼성초

신흥초 등 일제 강점기 시설물 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 등을 근대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근대건물트라이 앵글을 박물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어린이공간디자인 프로젝트 : 내가 꿈꾸는 대전 개최”

대전광역시 주최, 대전발전연구원과 (주)DMC가 공동으로 주관한 어린이공간 디자인 프로젝트가 8월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구)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내가 꿈꾸는 대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본 행사는 어린이들이 풍부한 사고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전문가와 함께 디자인교육 기회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짧은 시간이나마 시범적으로 기획되었다.

세상에 딱 하나뿐인 도시라서 ‘별나유’, 친구들과 함께 만드니 ‘차미나유’, 모두가 행복해지는 도시에서 사는 것이 ‘신나유!’라는 행사 슬로건 아래 개최된 어린이 공간디자인학교는 저소득층 어린이 13명을 포함한 총 50명의 초등학생들이 참가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참가한 어린이들이 주어진 미션을 통해 구 충남도청 공간을 탐색하고, 발상, 기획, 제작의 체계적인 디자인프로세스에 따라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본 구 충남도청 공간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또한 제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스로의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통해 종이 박스를 활용한 1:1 스케일로 직접 공간을 제작체험 해보았다. 어린이들에게는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공간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어린이 눈으로 바라본 참신한 아이디어는 원도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 행정담당자와 연구자들에게 조그만한 시사점이 되기도 하였다.

아이들과 함께 참여한 학부모들에게는 별도로 아이들과의 소통방법, 초등학교 안전확보방안, 대전 역사이팅 전략, 환경교육법, 미술교육법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하는 전문가 강연이 이루어져 어린이들의 행사가 아닌 학부모 교육도 병행 되어 높은 호응을 보였다.

이번 어린이공간디자인학교는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구)충남도청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을 둘러싼 공간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 무엇인지 공유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이번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목소리를 모았다.



## “제3차 대전사회적자본 포럼” 개최

- 마을 단위의 사회적자본 형성 전략과 사례 -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 사회적자본연구센터(센터장 최길수)에서는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제3차 사회적자본 포럼을 29일(목) 오후 3시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마을단위의 사회적자본 형성 전략과 사례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마을단위의 사회적자본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아울러 시민들의 민주적 공동체 의식 및 자발적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형성과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시민들의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며, 대전 발전을 위한 사회적자본 형성 전략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시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날 포럼에는 전은경 서울디지털문화예술대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광현근 대전대 교수, 김영미 대전서구의회 의원, 이현수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장, 소재문 대전시청 사회적자본담당공무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은경 교수는 주제발표 중에 마을단위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적 자본형성 전략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동네의 학습공간을 활용한 평생교육

활성화 등을 통한 마을 평생교육 활성화, 사회적 자본형성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활성화, 지역학습자원의 활성화 및 자발적 학습지원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공공평생교육기관의 상인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나친 수익자 부담 및 수요중심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자본형성의 관점에서 소외자, 소수자의 포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 대전발전연구원 좋은시민 정책아카데미 1기 수료식 ”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은 지난 5월에 개강한 좋은시민 정책아카데미 제1기의 수료식을 개최했다.

좋은시민 정책아카데미는 시민들과의 정책소통을 위해 마련한 시민참여형 정책토론회로 지역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는 자치역량을 갖춘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총 12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대전의 현안과제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내·외부 발제자의 발표에 이어 관련분야 대발연 박사들이 토론을 이끌고 수강생들이 질의와 정책제언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이창기 원장은 좋은시민 정책아카데미 1기의 성공적 진행은 앞으로 타 기관에서 진행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의 모범이 될 것 이다. 하지만 처음 진행된 과정인 만큼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통해서 1기 과정의 미흡했던 점은 수정 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욱 향상시키는데 힘써, 아카데미 2기 때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 “ 2013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교육 워크숍 ”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2013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교육 워크숍을 8월 22일(목)부터 23일(금)까지 이틀간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은 8월 14일까지 대전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자 접수를 통해 모니터링단 활동자를 모집하였다.

150여명의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활동자들은 이틀간의 교육에 참석하여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일련의 정책 실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다. 교육 워크숍에서는 성인적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대전시의 복지, 교통, 환경 정책에 대한 이해, 모니터링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모니터링 활동자들이 성인지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하는 기회를 가졌다.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단은 교육 워크숍을 시작으로 대전시의 교통, 환경, 복지 등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대전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활동자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환류 통로의 역할을 기대한다. 또한 활동가들은 정책 수혜자들이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정책을 체험함으로써 수혜자들의 욕구와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 전 직원 특강 개최 ”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이창기)은 8. 7(목)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조옥형(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 전략기획관, 전 대전시 기획관리실장)강사를 초청하여 전문가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현 정부의 최대화두인 창조경제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정책을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특히,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내용인 빅데이터와 정부 3.0시대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조옥형 전략기획관은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이라는 주제를 통해 왜 정부 3.0인가?, 정부3.0은 무엇인가?, 정부3.0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라는 세 가지 세부내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며,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또한, 정부 3.0을 통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가 되기 위해 공공정보 적극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활성화, 민간협치 강화등을 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음식물쓰레기 제로하우스 세미나 개최”

- 도시의 음식물쓰레기 효율적인 처리문제 논의 -

대전발전연구원 및 토지주택연구원은 30일 오전 10시30분에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제로 하우스'에 대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토지주택연구원 및 대전발전연구원의 전문가와 정책을 실현하는 공무원들이 현안문제 및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축사에서 “음식물쓰레기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전문가와 공무원의 최적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대전발전연구원 정현도 박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도시농업 등에 사용하여 최종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제로화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전시 및 5개구청의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분에 어려움이 있으며, 처리 시에 많은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이의 답변으로 토지주택연구원 오정익 박사는 “목질 바이오칩 등의 적용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된 상태로, 이미 안정적인 시범설치가 운영 중에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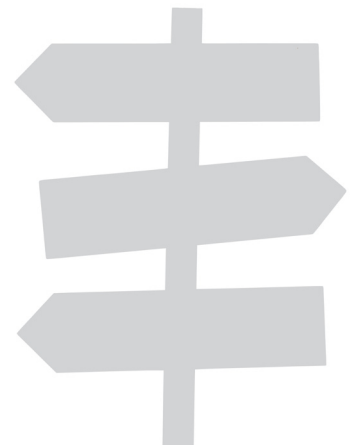
## 대전발전연구원 9월 행사안내

### 01 제5회 아태물협회 대전총회

- 행사명: The 5th IWS-ASPIRE Conference and Exhibition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의 물 학술제인 '아태물협회 대전총회'
- 일시: 2013. 9. 8(일) ~12(목)
- 장소: 대전컨벤션센터

### 02 미래대전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자문회의

- 주제: 대덕마인드 형성 및 추진방안 마련
- 일시: 2013. 9. 26(목) / 14:00
- 장소: 대전발전연구원 대회의실



# 사회적 자본으로 읽는 21세기 도시

원제 : 21세기 도시를 생각한다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문 경 원

- 20세기 도시는 근대적 도시계획의 이념에 의거하여 만들어졌음. 근대적 도시계획 이념은 영국의 에벤어저 하워드(Ebenzer Howard)의 「내일의 전원도시(Garden Cities of Tomorrow)」를 시작으로 미국의 패트릭 게데스(Patrick Geddes)에 의해 정립되었으며 광역도시의 사고 방식으로 계승되었음
- 근대적 도시계획은 르 코르부지에(Le Corbusier)가 쓴 「빛나는 도시」(La Ville radieuse / The Radiant City)의 이념임
  - 르 코르부지에의 「빛나는 도시」는 20세기 도시의 형성과 재개발 과정(process)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도시를 합리적 정신에 기초하여 최대한 기능화된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보았음
  - 고도로 발달된 20세기의 공업기술과 추상파 예술을 도시의 모습으로 설정해 구체화한 빛나는 도시의 상징은 유리, 철근 콘크리트를 대량으로 사용한 고층건물과 근대적인 디자인을 갖춘 자동차였으며, 이는 20세기의 기업자본주의와 정교하게 결합함
  - 그러나 르 코르부지에의 「빛나는 도시」는 추상적인 예술작품으로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생활하고 인간적 교류와 인간적 문화를 형성해 가는 장소는 아니었음
- 이에 반하여 사회적 자본으로서 도시는 수많은 거주자들의 생활 장소이며, 사람들이 일하고,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얻는 장소인 동시에 방문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서 문화를 창조하고 유지해 나가는 장소임
- 사회적 자본으로서 도시는 최적 도시의 사고방식을 더욱 발전시켜 사회적·문화적·자연적 관점에서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조건들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지역사회의 문제와 도시계획, 도시의 쇠퇴에 대해 관심을 쏟은 저술가이자 사회운동가의 사상이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함

## 1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도시 (菅野弘文 우자와 히로후미)

- 사회적 자본으로서 도시의 기본적 성격과 21세기 도시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1961년에 간행된 제인 제이콥스의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은 20세기에 지배적이었던 미국 도시 재개발의 방향에 대한 근원적 비판을 전개하면서 인간적인 도시의 기본성격을 제이콥스의 4대 원칙으로 특징지음
- 20세기 초 미국의 대도시에는 폭이 좁고 꼬불꼬불한 가도가 있었으며, 인구밀도가 높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왕래하였으며, 주된 교통수단인 노면전차가 도시의 구석구석까지 운행되어 인간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데 불편함이 없었음
- 그렇지만 1950년 말경 대도시의 대부분이 '몰락'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제이콥스는 미국 내 도시를 사례로 살기 편한 도시의 매력과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한 4대 원칙을 정리함
- 제이콥스의 도시는 지구온난화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자동차 이용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에너지 다소비형 고층건축이 아니라 자연과 풍토가 잘 결합된 건물과 시설 중심으로 건축을 해야 하며, 인간적인 면에서 매력적이며 지구 환경에 걸맞은 21세기 도시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음



## 2 유럽의 도시계획에서 배운다 (伊藤 滋 이토 시게루)

-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중심으로 도시계획의 현대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콤팩트 시티는 20세기 문명을 총괄하여 21세기에 갖추어야 할 도시 상(像)을 표현한 것으로서 1990년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함
- 콤팩트 시티의 가장 상징적인 점은 '혼합형 토지이용'이며, 그 전형적인 이미지는 좁은 공간 속에서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뛰어나게 꾸려나가고 있는 프랑스 파리의 구 시가지 광경임
  - 오래된 건물 속에서 넓은 가구를 사용하고, 매일 걸어서 갈 수 있는 상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생활 그 자체인 콤팩트한 거리가 21세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임
- 일본 도시의 경우도 어느 정도의 콤팩트화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의 도시는 먼저 철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동차에 지배 받는 구미 도시보다도 콤팩트성이 있음
-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양질의 주택과 주택 시가지이며, 시민들은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시가지를 아름답게 하려는 운동도 필요함

## 3 도시의 성장관리-진실한 도시재생의 길 (原田幸彦 히라시나 사치히코)

- 도시의 르네상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살기 편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갖춘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며,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은 도심지역을 더욱 더 고밀도로 이용하려는 단순한 계획에 불과함
- 도시재생은 단순히 고층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르네상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살기 편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갖춘 도시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함
  - 이를 위하여 여유 있는 공간을 갖추고, 녹지를 풍부하게 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중요시해야 함. 도시의 거주환경은 안전성, 건강성, 편리성, 쾌적성과 지역의 개성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하를 고려한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안전성임. 안전성은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화재, 교통사고 등 인위적 재해를 포함
- 안정성을 위하여 반드시 녹지를 확보하고 도로체계를 정비해야만 하며, 양자 모두를 갖춘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를 조성하는 계획이 필요함
-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환경의 형성을 위해서는 토지의 적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한 성장관리를 기본한 계획이 필요하며, 이는 개별도시의 계획이 아니라 광역적인 관점에서의 환경계획을 수립해야 함
- 그러나 지역의 합의가 없다면 구체적 계획이라고 할 수 없으며, 환경 계획의 기본은 광역적 토지이용 계획이어야 함
  - 광역적 토지이용 계획 하에서 자유경쟁 경제의 메커니즘을 발휘함으로써 비합리적으로 지역환경을 창조할 수 있음
  - 환경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 함. 환경계획에 대한 참여는 광역 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도시 수준을 초월한 광역적 계획에 어떻게 주민을 참여시킬 것인가는 오늘날 중요한 제도적·기술적 과제임
  - 또한 광역적 관점의 계획은 행정이 개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넘어 협력 체제를 유지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 4 지방분권과 도시재생 (神野直彦 진노 나오히로)

- 도시의 르네상스가 지방분권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지방분권이 크게 물결쳤으며, 중앙집권의 대표 국가인 프랑스에서도 미테랑(Francis Maurice Marie Mitterand) 정권 하에서 지방분권이 강력하게 추진되어 1982년 지방분권법을 제정함
  - 이 지방분권의 움직임과 연동하여 환경과 문화를 키워드로 유럽에서 도시의 르네상스가 시작되었고, 공업에 의해서 파괴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에서 전통문화를 부흥시켜 지식산업을 창출함
- 현재 진행 중인 유럽의 르네상스는 자연환경과 지역문화 재생을 주축으로 전개되고 있음. 국민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에 지역사회가 육성했던 지역문화를 부흥한다는 목표로 국민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지역 축을 중심으로 전개함
  - 이는 지역분권의 전제하에서 시민의 재정 관리를 축으로 주민 공동 사업으로 실시하였으며, 결국 중앙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님
- 그러나 일본의 지역사회는 고유한 지역문화를 상실하여, 획일적인 지역사회의 집합체로서 비인간적이고 반문화적인 동질사회를 형성해왔으나 최근에는 수많은 도시에서 환경과 문화를 키워드로 인간이 생활하는 '장소'로서 지역사회를 재생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됨
  - 일본은 지역사회의 공동경제인 재정에 대해 자기결정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벽에 막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자기결정권을 확충하는 것은 경기회복과 동시에 재정재건을 달성하는 길임

#### 5 교육의 장소로서 도시 (間宮陽介 마미야 요스케)

- 어린이의 성장을 배움의 과정으로 보고, 배움의 원형을 '놀이'라고 보았으며, 어린이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장소를 학교를 초월하여 도시 전체로 확대함

- 학교는 기껏 교육장소 중 하나에 불과하며, 학교교육의 개혁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도시를 배경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 방향을 잘못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 여유교육(餘裕教育, 주입식 교육을 탈피한 여유 있는 교육, 사고력, 표현력, 남에 대한 배려 등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덕목으로 꼽고 이를 육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는 일본의 교육정책임)이 정당하다는 점은 학교를 도시로부터 독립시킬 때이며, 도시를 배경으로 할 때의 여유교육은 그렇지 않을 때의 여유교육과는 성격을 달리함
- 여유교육에 한정시키지 않고 대부분의 교육개혁론은 학교를 독립시켜 개혁을 도시라는 문맥으로부터 분리해서 생각하며, 종래의 폐쇄 시스템(close system)에 대한 비판으로 제안된 열린 학교(open school) 역시 학교를 학교 외부 공간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있음.
- 개방된 공간과 폐쇄된 공간은 상호보완적이어서 개방된 공간 속에서는 폐쇄된 공간이 오히려 우리를 되찾는 피난처로서 기능하기도 함. 마미야의 논문에서 강조한 도시 전체가 어린이에게는 학교이며, 전체적 관점에서 교육개혁을 논한다면 개혁은 어린이에게 역작용을 미칠 수도 있음

#### 6 문화로서의 도시 녹지 (石川幹子 이시카와 마키코)

- 녹지는 인간생활의 기억과 깊게 연결되어 있으나 고도의 토지이용이 요구되는 도시에서 녹지를 사회적 자본으로서 담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의 강한 의지가 필요함
  - 이러한 의지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는 시대, 국가, 도시에 따라 다양하며, 세계 각지의 도시에서는 자랑할만한 사회적 자본으로서 '문화로서의 녹지'가 존재함.
- 산업혁명에 의한 도시로의 인구산업집중에 따라 환경위생 불량주택지, 도시내 교통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기존도시의 개조가 과제로 등장함
  - 이는 20세기 초부터 전반에 걸친 시대까지 이어졌으며, 도시의 영역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외연으로 넓어진 전원지역과의 토지 이용 질서 구축이 도시계획의 주된 주제가 되었음.
  - 영국에서는 전원도시론, 독일에서는 토지구획정리(지역제(zoning) 시스템을 산출하였고, 급속한 도시 확대에 직면해 있던 미국에서는 파크 시스템(park system) 이론과 사업수법을 실천적으로 전개함
- 이러한 세계 각국의 실험이 합해진 종합적인 도시계획은 1920년대 탄생하였으며, 녹지는 도시구조의 기본을 이루는 도시 축으로서 위치를 차지하였음
  - 제2차 세계대전 후 도시계획을 주도한 것은 1945년에 수립된 'Great London Plan' 임.
- 도심으로의 극단적 집중을 회피하고, 위성도시를 적정하게 배치해 새로운 대도시권을 창출하는 방식은 세계 각국의 도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침
  - 녹지는 그린벨트(green belt)로서 '도시의 성장관리' 정책의 중심이 되었으며, 이어서 1970년대부터 20세기 말에는 도시의 외연적 확대에 따라 도심의 공동화가 진행되고 도심재생이 과제로 되어, 녹지정비에서 '도시의 활력'이 기인함
- 그리고 21세기의 도시의 과제는 자동차 의존형의 확산적 도시 구조에서 파생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체감시키기 위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

## 7 관광학적 도시의 이념 (岡本伸之 오카모토 노부유키)

- 도시의 문화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관광학적 관점에서 도시를 설명함. 새로운 관광의 방식에 주목하여 도시의 문화를 중요한 관광 자원이라고 보고, 21세기에 도시관광의 모습을 모색해야 함
- 일반적으로 관광은 이동과 체재를 수반하는 경제적 중요성이 주목받음
  - 도시를 목적지로 하는 관광도 경제적인 중요성에서 주목을 받지만 1990년대부터 구미의 도시에서는 도시 중심지역의 황폐에 대한 도시재생의 수단으로써 관광진흥이 주목을 받음.
- 사람들이 자국 문화의 특성을 깨닫는 때는 여행자의 눈빛을 의식할 때부터 시작되므로 관광에 의한 문화교류도 중요함. 예전부터 관광 매력에 넘치는 도시는 문화의 세련된 호순환(好循環)이 가능하고 있지만 도쿄 같은 대도시는 세련된 문화 메커니즘이 발생하지 않음
  - 이는 자국 문화의 어어떠한 점이 우수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며, 그 결과 자국의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방향을 정할 수 없음
- 도시에서 관광객의 왕래는 도시성장의 계기와 원동력이 되며 도시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함

## 8 숙련된 집적과 지역사회 - 도쿄도 오오타 구 (柳沼 壽 야기누마 히사사)

- 도쿄의 오오타구는 소규모 영세공장의 집적을 고도로 유연한 분업 시스템을 가진 지역임. 오오타구의 배후에 있는 숙련과 숨겨진 지혜의 다양성은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혁신(innovation)을 촉진시키는 신뢰와 혁신을 산출하는 사회 교류자본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오오타구에서 영세공장이 지역사회와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기질을 갖고 숙련된 사람들을 산출하며, 숙련공들이 지역 사회의 혁신에 관하여 지역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음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의 발전은 산업과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확대되어가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오오타 구의 숙련의 확산과 전달은 지역사회의 혁신과 관련 있으며, 숙련을 갖춘 사람들의 기질이 지역사회와의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있음
- 오오타 구의 다양한 숙련의 집적과 고도의 분업 시스템인 '오오타 구 모델'을 참고해 오오타구가 독자적이면서도 다양성 있는 도시임을 설명할 수 있으며, 최근의 다양한 환경변화가 오오타구의 공장 집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9 교통과 도시환경의 보전 - 도로교통과 공공교통 (國則守生 쿠니노리 모리오)

- 도시의 르네상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시 교통문제를 도로교통과 공공교통의 관련을 중심으로 살펴봄
- 20세기는 많은 공업 국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른 도시 확대의 시대였음. 공업국가에서는 생활의 질 향상이나 환경에 뛰어난 이동수단에 대한 과제가 대부분 뒤로 미루어지고, 양적인 생산·소비활동에 중점을 둔 정책이 우선시됨
  - 그러나 이러한 도시화의 흐름도 종말을 맞이하고 있으며, 21세기는

-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일하기 쉽고 살기 좋은 매력적인 도시의 재구축, 즉 도시의 르네상스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
- 도시와 환경의 관계를 논의할 때 정면으로 부딪히는 도시 교통 문제는 주변 지역을 포함한 도시지역의 여객수송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공교통이 도로교통 증대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왔는가는 중요한 사안임
  - 구미의 대규모 도시 중 선도적 도시를 사례로 살펴보면, 중심 시가지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증대 방안과 대중교통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은 주변 지역을 포함한 지역의 도시계획과 지립적이고 책임성이 있는 의사결정, 공공교통의 재원 확립 등이 중요함
-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교통문제를 외부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도시에서의 공공교통 수단을 우선해야 함
  - 부분별한 도시의 스프롤화(sprawl,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시가지가 도시 교외지역으로 질서 없이 확대되는 현상)를 방지하는 과대한 기반시설(infra)의 준비에 필요한 부담을 피하면서 지방적(local)이고 지역적(regional)인 환경을 보전하며 지구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중요함
  - 살기 좋고 활력 있는 도시지역을 창조하고 매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교통의 방식을 포함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검토해야 함

## 10 도시의 온난화 (内山 勝久 우치야마 카츠히사)

- 최근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대도시의 기온 상승 문제는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
  - 과거 100년간 도쿄 도심의 기온이 약 3℃ 상승함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피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시민생활에 다양한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음
- 1990년부터 2100년까지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 상승은 1.4~5.8℃이며, 이에 따른 기후조건이 불안정은 인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함
  - 도쿄의 과거 100년간 기온변화는 확실히 21세기 지구 전체의 평균적 기온변화를 선취(先取)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영향도 앞으로 지구의 모습을 시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됨
- 열섬(heat island) 현상의 대기오염 문제가 주목받는 것은 오염 한 단위에서의 피해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임
  - 시간적으로는 질소산화물과 유황산화물이 대기 중에 방출되면 몇 시간 또는 며칠이 지나면 대부분 정화된다는 점에서 프레온 오염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음. 열도 유사한 형태(pattern)를 갖고 있으나 주간과 야간의 피해 정도가 다르고 계절에 따라서도 다름
  - 초(超) 장기간에 걸쳐 대기 중에 잔류하면서 영향을 계속 미치므로 스톡(stock)의 오염물질인 온실효과와 가스에 의한 피해와는 대조적임
- 열섬 현상을 도시문제로 채택해 도시의 열오염 대책을 수립해야 함. 따라서 열섬 현상에 대한 기온상승과 발생 메커니즘, 영향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며, 도시 대기의 유지와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사고방식을 원용하여, 현재 배출열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는 도시정책의 관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제동향

최근 대전지역 경제는 전월대비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생산과 금융부문이 부진하지는 않지만, 소비가 부진하고 수출과 수입 등 대외거래가 감소하여 다소 위축된 모습임. 전년동월대비로는 생산이 다소 위축되고 수출이 부진하지만, 소비와 수입이 호조세이고 고용상황도 매우 양호한 편이며, 물가 상승률도 1.2% 수준으로 지난달 0.8%보다 소폭 상승하였지만, 안정된 모습임.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2년 1월 들어 회복국면으로 반등한 이후 4월까지 상승국면을 지속하였으나, 5월부터 10월까지 후퇴와 회복을 반복하는 가운데, 11월 이후 소폭 반등하기도 하였으나, 2013년 1월부터 6개월째

하강하여 경기가 침체되는 모습임.

우리나라 경제는 최근 주요지표가 개선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고하지 않고 미국 양적완화리스크, 주책거래급감 등 대내외 하방위험도 상존하고 있음.

따라서 대전광역시에는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생활물가 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면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경기종합지수

- 2012년 1월 들어 회복국면으로 반등한 이후, 4월까지 상승국면을 지속하였으나 5월부터 12월까지 후퇴와 회복을 반복하였고, 2013년 1월부터 6개월째 하강하여 경기가 침체되는 모습임.

### 생 산

- 2013년 6월, 전월대비 생산은 증가한 반면, 출하와 재고는 감소하여 부진한 모습은 아니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생산과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는 증가하여 부진한 모습임. 향후 생산은 IT 업종의 경우 스마트기기 신모델 출시를 앞두고 다소 개선되었으나, 자동차 부문의 경우 일부 노조의 부분파업, 하계 휴가 등으로 생산이 감소할 가능성 있음.

### 소 비

- 2013년 7월 소비는 전월대비 전력사용량과 자동차등록대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가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대형 소매점 판매와 유류소비량 및 전력사용량, 자동차등록대수가 증가한 반면, 농수산물 판매량과 가스소비량 등은 감소하였음 전반적으로 전월대비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이며, 전년동월 대비로는 전월에 이어 회복세 조짐을 보이고 있음.

### 고 용

- 2013년 6월, 고용상황은 전월대비 취업자는 감소하였으나, 실업자는 감소하고 실업률도 4개월째 하락하여 3개월째 개선되는 모습임. 전년동월대비로도 취업자가 서비스업과 건설업,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하여 1년째 지속 증가한 가운데 실업자와 실업률도 4개월째 감소·하락하여 고용상황은 매우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음.

### 물 가

- 2013년 7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공공서비스에서 하락하였으나, 농산물 특히 축산물의 가격 상승과 석유류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하여 전월보다 0.3% 상승함. 물가 상승률은 1.2% 수준으로 지난달의 0.8% 수준 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최근 물가는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

### 금 용

- 2013년 7월 금융시장은 미국의 급격한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주가는 상승하고 환율은 하락하였음.

### 대 외 거 래

- 2013년 6월 전월대비 수출과 수입 모두 전월에 이어 감소함. 전년동월대비로는 수출은 광산물, 농림수산물, 잡제품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고, 수입은 섬유류, 전자전기제품, 플라스틱 고무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음. 전반적으로 수출은 최근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며, 수입도 최근 5개월째 호조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임. 무역수지는 2월부터 흑자를 유지한 이후, 6월은 전월보다 흑자폭이 축소됨.

